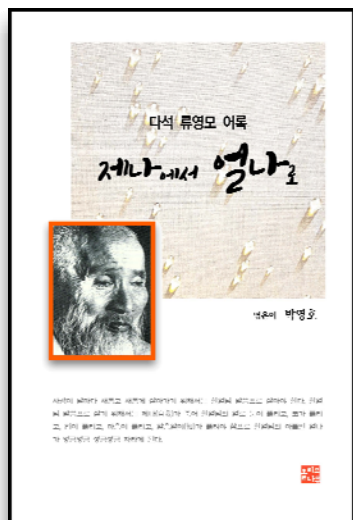


* 이 한 권의 책 || 제나에서 일어나: 다석 류영모 어록



* 다석 류영모 저 / 박영호 엮음

* 올리브나무 발행 / 신국판 / 328쪽 / 값 16,000원

동양과 서양이 만나 잉태한 “사상의 옥동자”

역사학자 토인비는 “20세기 최대의 사건은 불교와 기독교가 만난 것”이라고 하였다. 21세기의 세상은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사상적·철학적·종교적 융합과 그로 인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각자 자기 자신의 가슴 안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서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직 20세기도 미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마젤란이나 마르코 폴로가 세계일주 항해를 함으로써 비로소 세계지도가 완성되었지만, 당신이 만약 불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의 영역 안에만 머물면서 타종교에 조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정신적인 세계일주를 하지 못한 채 동양인이나 서양인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3차원 위성지도(내비게이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평면 지도책만을 고집하는 것과도 같지 않을까.

서양과 동양이, 불교와 기독교가 만난 이후, 지구촌이 명실공히 하나가 되면서, 종교간의 활발한 교류를 넘어서서 이제는 종교에서도 진정한 통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혹은 어떤 다른 종교든, 동일한 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이라는 것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3차원적 세상에서 내비게이션이 발명되어 보편화되었듯이, 정신계에서도 마음이 가야 할 길을 가리켜 보이는 내비게이션이 발명되었다. 아직은 그것을 활용하는 이가 적을 뿐.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서 손잡고 만들어낸 정신의 내비게이션, 그것을 사용하게 된 자의 자유와 풍요로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인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닐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찾고 또 찾아서 도달해야 할 목표는 동일하다.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된 신성, 불성을 알아차리고 깨어나는 것. 이 지향점을 가리켜 보이는 것은 비단 기독교와 불교만이 아니다. 유교, 도교, 이슬람교 등도 다 마찬가지다. 종교다원주의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종교일원주의인 것이다. 모든 종교가 가리켜 보이는 것은 ‘하나’인 것이다.

20세기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영성 철학자인 다석 류영모는 인간으로서의 에고(몸나, 맘나), 곧 ‘제나’에서 벗어나 영이 주인이 되는 ‘얼나’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켜 보인 선구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천 가지 만 가지의 말을 만들어 보아도 결국은 하나(절대)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 하나를 깨달아야 한다. 깨달으면 하나이다. 한얼님의 나가 ‘한나’, ‘하나’이다.”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얼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한얼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나(自我)가 죽어 한얼님의 얼로 눈이 뚫리고, 코가 뚫리고, 입이 뚫리고, 마음이 뚫리고, 알음알이(知)가 뚫려야 참으로 한얼님의 아들인 얼나가 엉큼엉큼 성큼성큼 자라게 된다.”

“우리 사람의 값어치가 무언가? 몇천 몇만 년이 걸려도 한얼님의 얼로 한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얼나라에서 떨어진 한얼님의 아들이란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한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우주이시며 우주의 정신인 한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임을 깨닫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한얼님을 그리며 생각하면 정신이 위로 오르게 된다. 한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요 명상이다. 기도는 내 생각이 한얼님께로 피어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한얼님의 뜻을 좇아 한얼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몸삶은 덧없어도 얼삶은 영원하다.”

“우리 맘속에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다. 한얼님의 말숨(말씀)이 타고 있다. 그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사람은 한얼님의 말숨이 불타는 성화로(聖火爐)이다. 이것이 현 존재이다.”

다석은 한결같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얼나’, 곧 ‘한얼님’을 가리켜 보이므로, 다석 사상을 풀이한 어느 책을 읽든 똑같은 지향점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번에 간행된 『제나에서 얼나로: 다석 류영모 어록』은 그의 동서회통의 한얼 사상을 한 권의 책을 통해 가장 넓고 깊게 음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를 관통하며 살다 간 다석 류영모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은 불교인인가? 오케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오케이. 그러나 당신이 만약 불교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다면, 당신은 아직 세상의 반쪽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이 음이라면, 서양은 양이다. 음과 양이 만나면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 아기를 낳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다석 류영모의 가슴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 사상의 옥동자가 잉태하였다.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었다. 다석 류영모를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향유하는 것이다.

다석의 말씀 마디마디에 오래 머물며 그 열매를 맛보고 음미하기를! 열매는 열매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미래를 위한 씨앗이 들어 있다. 그렇게 열매를 향유하고 또 씨앗을 퍼뜨려서 마침내 지구가 명실공히 하나 되기를! 그렇게 저마다의 신성(불성)으로 불이 밝혀지기를!

글: 유영일 (수필가, 번역가, 『백일 감사』의 저자)

** 자료요청: 010-7755-2261 yoyoyi91@naver.com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